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수소용품 전문 검사기관 건립 본격화

도·완주군·가스안전공사 상호 긴밀 협력체계 구축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강점 국내 선도지역 입지 굳혀

전북도와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8일 전북도청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지난해 2월 제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가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각종 수소용품 검사와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 핵심기관이다.

수소용품만을 위한 검사지원 기관은 국내 최초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앞으로 센터는 수소추출기와 수전해 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 검사와 수소용품 평가·인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개발 지원과 안전성 확보로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를 적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전북도·완주군·한국가스안전공사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센터는 앞으로 2023년 개소를 목표로 500억 원을 투자해 완주 테크노밸리 내 연구용지에 건립 예정이다.

수소 완제품 인증 검사를 시작으로 소재와 부품까지 총괄 지원할 것으로 보여 향후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건립으로 탄소 산업에 이어 국내 수소경제도 선도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해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전북도·완주군이 강점을 가지게 돼 수소분야 국내 선도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의 그린수소 생산기능과 완주군의 수소 저장 및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 왼쪽)와 임해중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성일 완주군수(사진 오른쪽)가 18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내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활용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인증기능의 결합으로 전북의 수소산업은 그 어떤 지역보다 고부가가치화와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에 수소용품, 특히 연료전지 사용 전·후 제품에 대한 평가와 인증기관 구축으로 완주군의 수소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생산 및 공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북도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기반, 완주군 수소 저장·활용 기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인증기관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업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해중 사장은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안전관리정책에 따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국민의 수소용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수소용품 보급에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 도,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 개소

시험·인증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혁신 견인 기대

전북도는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 및 기술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군산시 소재 새만금산업연구단지에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이하 시험연구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시험연구센터 조성은 전북도·군산시·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이 함께 힘을 뒀다.

지난 2018년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시험연구센터 조성은 전북도·군산시·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이 함께 힘을 뒀다.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99억원이 투입되며, 스마트 건설기계 자율작업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센터와 연구설비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날 조성된 시험연구센터 내에는 건설기계 자율작업 및 전기동력 시스템의 신뢰성과 스마트 건설 작업 생산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장비 3종이 연차별로 구축된다.

스마트 건설기계의 시험연구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도내 건설기계 기업의 차세대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과 건설기계 관련 부품의 성능인증 및 시험연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특수인증의 지속적

인 확대를 통해 완성차의 품질향상과 시험·인증의 대내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기구축된 종합건설기계시험센터(육외 주행 성능 시험장, 안전·환경 평가시험장)와 연계해 고전압조작을 배치해 스마트 설비개발, 시험평가기술 개발 등 스마트 건설기계 초기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산업은 지능화 및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어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기반(시험연구센터) 확보는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평가·인증 수요가 급증(협력사)의 이용증가에 따른 기업 유치 기여와 시험연구의 해외 의존 탈피로 전북이 스마트건설기계 시험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전병문 도 혁신성장산업국장등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북도 건설기계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4차 산업 융합형 차세대 건설기계 시장 대응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내 건설기계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시험평가 전문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협약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드론축구 메카' 위상 강화

전주시, 110억 투자 드론축구국제센터 건립키로 시민들 위한 실습체험장·공용공간 등으로 설계돼 4차 산업혁명 주도 문화·산업 투·트랙 전략 추진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만든 전주시가 2025년 드론축구월드컵 대회를 치를 드론축구국제센터를 짓는다. 이와 함께 드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을 내서는 등 미래먹거리인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주시는 글로벌 드론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드론 관련 문화와 산업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근 스포츠와 문화의 영역으로 지리 잡은 드론축구를 중

심으로 드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소기업 육성 등 산업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보급한 드론축구 중주도시로서 2025년 제1회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총 110억원을 투자해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인 드론축구국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드론축구국제센터는 2경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2개 경기장(메인경기장, 보조경기장) 규모로, 중계실과

정비실, 선수대기실, 관람석 등도 갖추게 된다. 시민들이 드론축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체험장과 시뮬레이션 체험장, 공용공간 등으로 설계됐다. 시는 드론축구국제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드론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해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에 드론센터와 기업입주시설을 갖춘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드론 관련 산·학·연 기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드론공용장비 5종을 구축해 일부 운영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10종의 드론장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시는 드론장비 구축과 더불어 전주혁신창업허브 5층에 마련된 입주 공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소연료전지사업 등 드론 관련 12개 산·학·연 기관을 입주시키고 전주 소재 드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투·트랙 전략을 중심으로 한 드론산업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 조만간 전주지역 드론 관련 산·학·연 기관을 방문하고 드론 관련 산·학·연 전문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성 전주시장은 "전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축구가 가장 처음 시작된 중주도시"라며 "이 기반을 바탕으로 2025년 드론축구월드컵을 반드시 개최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드론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